

광주여대, 라오스·베트남 등 3개국 해외 봉사활동 참가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사회봉사센터는 최근 대학사회봉사협의회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에 참여해 대만 해외봉사를 실시했다. <사진> 이번 대학생 해외 봉사에는 광주여자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나지영씨를 비롯해 중등특수교육과, 항공서비스학과, 간호학과 학생이 참여했다. 총 4명의 학생들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봉사자들은 교육 시설을 방문해 환경, 보건, 체육,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해외 빈곤층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태권도 체육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 봉사활동을 펼쳤다.

중등특수교육과 윤현주씨는 "평소 희망하던 해외봉사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돼 감사했고 봉사를 통해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계관을 넓힐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정 사회봉사센터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해외봉사에 참여했는데, 학생들이 직접 해외봉사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무척 기쁘다"며 "동계 방학 동안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여 여러 국가에서 마음나눔을 적극

적으로 실천한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행복한 세상만들기 운동 협의회, 등산로 꽃무릇심기 실시



'행복한 세상만들기 운동 협의회(회장 박노창)는 지난 11일 봉산단원 40여 명이 참여해 무등산 공왕봉과 삼각산등산로 꽃무릇심기 작업을 실시했다. 협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3월 꽃무릇 심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5·18국립묘지와 민족민주열사묘지 비석단기, 5·18항쟁 사적지 표지석단기 및 주변청소, 등산로꽃길조성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행복한 세상만들기 운동 협의회 제공>

한전 서광주지사, 복지시설 '하람이네'에 기부금 전달

한국전력 서광주지사는 최근 '사랑의 온정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인 '하람이네' 공동생활가정에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직원들이 직접 기획한 사랑의 온정나눔 사업은 난방비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계 및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돕고자 시작했다. 한 명의 직원이 빠짐없이 모금에 동참해 마련한 기부금은 하람이네 공동생활가정 거주자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진출훈련에 쓰일 예정이다.

이진화 서광주지사는 "하람이네 공동생활가정은 소형 사회복지시설이다보니 외부 지원이 적어 열악하다고 들었다"며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거주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돕는 발판



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박민서 전 목포대 총장

전남사회복지협의회장 취임



박민서(66·사진) 전 목포대 총장이 전남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 신임 회장은 지난 1월 열린 2023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임돼 13일 취임했다. 박 회장은 목포대 사회 복지학과교수, 목포대 총장, 민선8기 전남도지사 공약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으며 전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을,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다.

박 회장은 "재임하는 동안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관련 시설과 기관·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해 민간자원과 사회소외계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 힘써 전남지역 복지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보성경찰서, 학교폭력·소년범죄 예방활동 캠페인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최근 벌교초등학교 정문에서 보성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녹색어머니회 등 관내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학교폭력·소년범죄 예방활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보성경찰서 제공>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이슈 픽 쌤과 함께(재)	00 오아시스(재)	15 헬로키키 체육교실(재) 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이 맛에 산다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키 글로벌 동물 뉴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뉴스브리핑
3	00 영상앨범 산(재) 3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실 문계공황 3(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일타강사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크740	50 비밀의 여자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오아시스	00 PD수첩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기획 창 50 더 라이브		00 헛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1	30 KBS 뉴스라인	10 스튜디오 K	30 100분토론	20 모범택시 2(재)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더 시즌즈-박재범의 드라이브	55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뒤죽박죽섬의 빅포맷밀리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00 로보가 풀리
07:00 뽀롱뽀롱 뽀로로	12:00 EBS 뉴스 12	18:30 번개망토의 비밀 스페셜
07:15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9:00 미라클러스: 레이다비그와 블랙캣
07:45 뽕뽕뽕 부부맨	13:00 버디가 사람들	19:30 한국의 둘레길
08:00 엉덩방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	19:50 극한직업
08:20 출동! 슈퍼윙스	14:45 한국의 둘레길	20:40 세계테마기행
08:35 명탐정 피트3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로보가 풀리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어른 아이가 되는 시간 2부 바람, 바람, 바람>
09:05 슈퍼투퍼 잉글리시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빅 블루	16:15 페퍼 피그	22:45 건축탐구 - 집
09:35 타타와 쿠마	16:25 명탐정 피트3(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6:40 엉덩방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4일(음 2월 23일 辛未)

<p>36년생 인간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 48년생 자기당착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60년생 흐트러진다면 회의를 수백에 없다. 72년생 시기의 선택을 잘해야만 행복을 유지한다. 84년생 목표점에 진입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판세로는 변수가 있다. 96년생 전면적으로 거사를 도모할 수 있는 날이다.</p> <p>행운의 숫자 : 31, 72</p>	<p>42년생 예견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라. 54년생 전환시킬 수 있는 역발상이 유용하다. 66년생 결과 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다. 78년생 익히 잘 아는 바라 하더라도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 90년생 진행되고 있다면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 02년생 도약의 발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p> <p>행운의 숫자 : 46, 84</p>
<p>37년생 흥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49년생 전체를 이해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확보하자. 61년생 전혀 의식할 필요 없으니 소신껏 행해도 된다. 73년생 특수한 상황까지 감안하는 것이 완성을 높인다. 85년생 변수에 맞게 임해야만 복도 따르는 법이다. 97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세에 놓여 있다.</p> <p>행운의 숫자 : 36, 95</p>	<p>43년생 예매한다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유리하다. 55년생 아차 하면 당하니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 67년생 열정을 쏟은 가운데 결실이 보이리라. 79년생 넘어가려 하지 말고 밝혀야만 하느니라. 91년생 의도적으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으니 잘 살펴야라. 03년생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p> <p>행운의 숫자 : 32, 74</p>
<p>38년생 내키지 않는다면 굳이 행할 필요도 없느니라. 50년생 설령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봉합할 가능성이 높다. 62년생 석연치 않다면 중단해도 무방하다. 74년생 방심하다가 휘둘릴 수도 있으니 적당한 간격을 두라. 86년생 일시적으로 마음이 동하더라도 철저히 절제해야만 한다. 98년생 부담이 경감 되겠다.</p> <p>행운의 숫자 : 67, 86</p>	<p>44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그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56년생 누적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68년생 유대 관계가 절실할 필요할 때이다. 80년생 점점 가치를 잡게 되는 형국이다. 92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년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화중지병에 불과 하느니라.</p> <p>행운의 숫자 : 06, 65</p>
<p>39년생 영광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 51년생 고난은 삶을 단련시켜 줄 것이다. 63년생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중추적인 시점이다. 75년생 마야흐로 김성을 향해 진입하는 길목에 놓여 있다. 87년생 중추적인 때에 번잡함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발생한다. 99년생 불편하기는 하나 흥사는 없고 평강할 뿐이다.</p> <p>행운의 숫자 : 08, 66</p>	<p>45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판세로는 미약하다. 57년생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점을 안게 되리라. 69년생 불편이 올 수 있으나 머지않아 해소되리라. 81년생 현실성 있는 설계와 지속적인 노력 속에 희망이 싹트리라. 93년생 머지않아서 윤곽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05년생 지필해야 한다.</p> <p>행운의 숫자 : 01, 81</p>
<p>40년생 바퀴 달린 것은 전부 조심해야 하느니라. 52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생산적이나, 64년생 확인과 검토는 오류를 방지할 것이다. 76년생 사정을 잘 헤아려서 처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88년생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도량이 달라진다. 00년생 똑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태도에 따른 차이가 크다.</p> <p>행운의 숫자 : 35, 68</p>	<p>34년생 흑과 백으로 명암을 분명히 하리라. 46년생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된다. 58년생 변변치 못한 결과 앞에서 상심하는 형상이다. 70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82년생 번거롭더라도 지금 완벽하게 처리해 두어야만 훗날이 안전하리라. 94년생 손을 맞잡고 함께 가야 이룰 수 있는 도량을 구축한다.</p> <p>행운의 숫자 : 37, 57</p>
<p>41년생 정면으로 승부를 내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53년생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의 원리 속에 기막힌 인연임을 알게 되리라. 65년생 너무 오래되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 77년생 주된 것보다 부가적 가치가 오히려 클 것이다. 89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흔들림이 보인다. 01년생 기쁨의 자리에 함께할 수다.</p> <p>행운의 숫자 : 44, 67</p>	<p>35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일관되어야 성취할 수 있다. 47년생 지금 당장 쉽게 결론지어지는 어려운 도량이다. 59년생 결정되었다면 신속하게 실행해야 하느니라. 71년생 줄기 찬 노력과 인내가 수반 된다면 결실이 있다. 83년생 의욕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실행해야 한다. 95년생 다방면을 고려할 수 있는 현명함이 절실하다.</p> <p>행운의 숫자 : 26, 62</p>